

희망찬아침 평온한저녁 행복한 **정선**

신축년 새해,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이지만
희망찬 정선군을 만들기 위해 군민여러분과 함께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겠습니다.

동계올림픽 유산 가리왕산 알파인경기장 존치 군민 대정부 투쟁 재개!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산인 가리왕산 알파인경기장 합리적 복원을 위한 군민들의 소리 없는 외침이 2021년 신축년(辛丑年) 가리왕산의 희망찬 일출과 함께 다시 시작됐다.

코로나19로 모든 일상이 멈추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알파인경기장 철거반대 범 군민 투쟁위원회(위원장 유재철)와 군민들이 하나된 마음으로 동계올림픽 유산인 가리왕산 알파인경기장 합리적 복원을 위해 무기한 대정부 총력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투쟁위는 무산될 위기에 놓였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최근 정상화 추진에 탄력을 받은 만큼 알파인경기장 합리적 복원사업 또한 군민들의 염원이 반드시 받아 들여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소리 없는 투쟁을 이어가기로 했다.

가리왕산 하봉 정상과 알파인경기장 관리동 컨테이너에서 영하 20도 안팎에 달하는 열악한 상황속에서 목숨을 걸고 투쟁을 이어가는 것은 물론 가리왕산을 찾는 국민들에게 동계올림픽 유산인 정선 알파인경기장 존치의 당위성을 알리기 위해 홍보활동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한편,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의 주역인 가리왕산 알파인경기장 사후 활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리왕산 합리적 복원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한 후 현재까지 12차례의 본회의와 3차례의 실무회의를 진행하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올림픽이 끝난지 4년째 접어든 가운데 군과 투쟁위는 협의회에 조속한 개최와 알파인경기장 문제 해결을 빠른 시일 내 결정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군에서는 알파인경기장 곤돌라 시설을 존치하여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도 가리왕산의 장관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고, 가리왕산 알파인경기장을 친환경적으로 잘 활용하여 지역의 관광지와 연계하여 일자리도 창출하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합의안을 제시한 상태이다.

이를 위해 관내 160여개 기관·사회단체가 대정부 투쟁에 참여하고 있으며, 군에서는 군민들의 염원대로 가리왕산 알파인경기장이 존치되어 자랑스러운 올림픽 유산으로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모두가 만족하는 협의안이 올 상반기 중 반드시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공동체 회복 종합대책 과제 발굴 총력

정선군은 포스트 코로나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군민 행복, 공동체 회복 종합대책 과제 발굴”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이후 경제적·사회적으로 변화된 사회구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책개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지난 1월 13일 첫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19 위기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안전망 확대 ▶지역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맞춤형 지원 ▶군민들이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상시 방역체계 구축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

는 보건복지 확대 등을 위한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실무협의회에서는 칸막이를 없애는 자율토론을 통해 실현 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시책을 발굴하여 군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선군은 협업과 소통을 바탕으로 코로나19로 훼손된 공동체 의식과 지역상권 붕괴에 대응할 수 있는 “두레” 정신과 적극적인 행정, 와해성 혁신이 필요한 시기인 만큼 정책개발 실무협의회 구성·운영을 통해 군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정선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을 결집해 나갈 방침이다.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2025년 종료 정선군 폐특법 개정 관련 연구 용역 완료

지난 1995년 제정되어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이 두차례 연장후 오는 2025년 종료를 앞두고 정선군이 적용시한 폐지를 위해 사활을 건 총력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폐특법 개정 방향에 관한 연구 용역을 완료하였다. 이번 연구는 군에서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정선지역 사회연구소에 의뢰하여 진행하였으며, 황인욱 소장과 강승호 강릉원주대학교 교수, 박철현 국민대학교 연구교수, 이주석 균형사회플랫폼 운영위원 등이 공동연구자로 참여했다.

‘폐광지역 개발의 법적 안정성 제고’를 주제로 한 이번 연구는 지금까지 폐광지역 발전 관련된 취약성 발생 원인을 분석하는 등 여러 가지 쟁점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폐광지역 발전을 위한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도출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제21대 국회에서는 4건의 폐특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심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연구용역 결과는 개정안 발의 이후 최초로 나온 체계적인 학술연구보고서로서, 향후 폐특법 개정안 심사 및 대안 도출 과정에서 중요한 근거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구보고서는 폐특법을 우리나라 지역개발법의 역사 속에서 고찰한 최초의 보고서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폐특법은 오지개발촉진법, 도서개발촉진법, 접경지역법 등과 같이 국가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제정된 지역개발 특별법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다른 법들이 상시법의 지위를 획득한 반면 폐특법은 현재 유일하게 한시법으로 남아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폐특법과 폐광지역의 함수관계 및 폐특법 연장이 폐광지역 인구변동에 미치는 상관관계를 밝힌 것이다. 보고서에는 폐특법의 제정 및 시한 연장이 폐광지역 인구에 미치는 유의미한 영향은 뚜렷하나 그 영향력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폐특법의 종료는 지역 일자리와 국가경제, 폐광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을 구체적으로 예측하고 그 손실의 규모를 파악하였다.

폐특법 종료시 강원랜드 사업 내에서만 약 5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며, 국세의 손실추정액은 약 3,300억 원, 지방세의 손실추정액은 약 300억 원, 관광기금과 폐광기금 등 기금 손실액도 3천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2026년 이후 매년 최소 약 1조2천억 원의 생산유발효과, 약 5,600억 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약 8,800명의 취업유발효과가 함께 상실될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1,554억 원 규모의 폐광지역개발기금 지원중단으로 폐광지역에서만 연간 약 3,03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 1,259억 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1,316명의 고용유발효과, 약 1,717명의 취업유발효과가 상실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보고서는 현 시점에서 폐특법 부칙의 적용시한 삭제의 필요성과 의의를 정리하였다. 지역 개발, 경기 회복, 환경 복구, 삶의 질 개선과 경제 자립 등 폐광지역의 다양한 난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이제는 시한 연장과 같은 임시 조치가 아니라 안정된 시간을 허용할 필요가 있으며, 적용시한의 삭제는 폐광지역의 불안정성을 해소하여 인구유출을 억제하고 장기 투자 계획 수립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최종보고서는 폐광지역 개발의 법적 안정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서 ①폐광지역의 경제 진흥을 위한 개발 지원의 안정화 ②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폐특법의 상시화 ③주민의 삶을 돌보기 위한 폐특법의 현대화를 제시하였다. 즉,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킨다는 관점에서 지역개발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확실한 법적 담보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폐광기금 납부 기준과 관련된 불합리성과 불안정성을 시급히 제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며, 폐특법의 시한 연장이 폐광지역의 인구지행에 미치는 연관 효과가 점차 약화되고 있고, 불안한 투자 환경으로 인해 폐광지역에서 기업 유치 작업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만큼, 시한조항 삭제를 통해 법 제정 취지에 맞도록 인구지행과 기업 투자의 걸림돌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고, 긴급한 현안인 적용시한 삭제와 기금 납부기준 개정을 완료한 후에 주민 생활 향상의 관점에서 폐특법을 현실에 맞게 세심하게 손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연구보고서는 지역개발에 관한 법령으로서 폐특법 자체에 대한 최초의 체계적인 연구이자 지역사회의 논점을 체계적으로 충실히 반영한 현장 밀착형 연구라는 데 의의가 있으며, 이번 연구를 통해 폐특법과 지역사회의 함수관계와 종료시 파급 효과의 규모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만큼, 앞으로 여야 정치권과 정부 당국이 폐특법 개정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강원랜드의 장기 휴장으로 특히 폐광지역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군에서는 폐광지역의 소외도지 않고 경제적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21대 국회에 발의된 폐특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꿈과 삶, 배움의 즐거움이 있는 평생교육 활성화 추진

정선군은 코로나19 장기화의 위기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청소년들의 미래와 꿈을 향한 교육지원과 함께 배움의 즐거움이 가득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정책을 지원·추진한다.

올 한 해동안 공교육 및 지역특화교육 추진, 평생학습 프로그램 및 문해교육사업 운영, 사북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정선군립도서관 건립 등 평생교육 활성화 시책추진에 주력해 나갈 계획이다.

우수한 미래인재 육성과 교육시설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23억 원의 교육경비를 투입해 5개부문 83개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정선군과 도교육청 협력사업으로 지난 2018년부터 16억 원을 투입하여 학생과 교사, 학부모, 마을이 함께 머물고 싶은 정선 공동육아 모임 등 12개 사업을 추진하는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미래의 주역인 지역인재 육성 및 지역학교 명문고 성장을 위한 정선 인재육성아카데미를 1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며, 올해에는 관내 고등학생 90명 참여한다. 전국 최초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무상 우유 급식, 교육비, 교복·체육복 구입 지원비 등 '완전무상교육' 추진은 물론 정선장학회 운영으로 2020년까지 4,857명에게 78억여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고 올해에는 360명의 장학생을 선발해 9억8,2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군에서는 지역특색을 반영한 읍·면 행복학습센터 운영 및 문해교육 운영으로 주민들의 학습기회 제공 등 주민중심 학습서비스 및 평생교육 체제 구축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 지역공동체 활성화, 평생교육프로그램, 초등학력인정 문해교육, 디지털 생활문해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사북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16개소)에서는 다양한 독서 문화진흥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중심의 평생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사북공공도서관에서는 폐광지역 청소년 역량 강화 및 잠재능력 개발을 통하여 미래인재를 육성하고자 징검다리스쿨을 4억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한다. 아울러 군은 정선읍 봉양리 54-7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900㎡ 규모의 정선군립도서관 및 가족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정선군립 도서관·가족센터 조감도

정선군립도서관에는 북카페, 개방형 열람실, 학습실 외에 다함께 돌봄센터와 평생학습관 등이 조성될 예정이며, 정선군 가족센터에는 정선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전, 키즈카페, 교류소통공간, 공동육아나눔터, 쿠킹스튜디오, 대강당 등 이웃·세대간 소통과 교류 활성화를 위한 다목적 공간과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코로나19 극복 '사회적 거리두기 지킴이' 운영

정선군은 코로나19로부터 군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지역 상가를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홍보와 안내 활동 등을 위한 찾아가는 방역지침 홍보단인 '사회적 거리두기 지킴이'를 운영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킴이는 식당, 노래방 등 방역지침 적용 대상 시설부터 그 외 일반 상가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방역지침을 안내하고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업종별 지켜야 할 방역지침에 대한 내용이 담긴 전단지과 손소독물티슈를 함께 배부하며, 시설별 맞춤형 방역지침 안내와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방역지침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와 호응이 높다.

군은 방역지침 홍보단 활동을 통해 업주들의 방역 참여를 유도하여 안전한 지역 상가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상가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방역과 지역경제 활성화 두 분야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 공공일자리 지원 확대 추진

정선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을 위해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이를 위해 복지·경제·환경·산림·여성·청소년 등 다양한 분야에서 5,300여개의 공공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복지분야 일자리 지원사업으로는 94억 여원을 투입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34개 사업에 2,786명,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에 29명, 자활근로 12개 사업에 106명 등 2,921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지원 사업 : 경로시설 봉사 도우미, 우리동네 푸르미, 어린이 안전 지킴이, 노노 케어, 복지시설 봉사 등

경제분야 연령별 맞춤형 지원사업으로는 총 35억 여원을 투입해 중장년 농촌일손돕기 지원에 800명, 공공근로사업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등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에 304명, 청년일자리 지역정착지원 및 정규직 일자리 지원에 46명 등 총 1,150명을 지원하고, 여성 및 청소년 분야에 여성 취업창업지원 및 사회참여 강화를 위해 150명,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에 700명 등 총 85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환경분야에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및 하천변쓰레기 수거사업,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지원사업 등에 총 80명을 지원하며, 산림분야로는 38억원을 투입해 산불전문진화대 77명, 취약지 산불감시원 90명, 공공산림가꾸기 50명, 이동단속초소 운영의 7개사업에 23명 등 총 260명을 지원한다.

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상생활이 멈춤으로 이어지며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역의 청소년을 비롯한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보다 질 높은 일자리 지원을 통해 소득창출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지방세(군세) 감면 지원

정선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세부담을 덜어주고, 위기극복을 위한 범군민 동참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군세를 감면한다.

지원대상 세목은 2021년도분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이며, 적용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감면내용을 살펴보면, 재산세는 2021년 6월 1일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 소유자에게 2021년 7월에 부과되는 재산세(건축물)에 대하여 임대료 인하율만큼 최대 50만원까지 감면하고, 시설(영업장)폐쇄명령을 받은 건물 소유자의 해당 물건 재산세는 100% 감면한다.

자동차세는 강원도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 대상자, 확진자 및 격리자, 시설폐쇄명령을 받은 건물 영업주의 자동차(영업용)에 대하여 2021년 6월 부과되는 자동차세 100% 감면(1인1대)하고, 아울러 2021년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에 대하여 100% 감면한다.

군은 신속한 지원을 위해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관련 부서의 자료를 활용하여 직권으로 2021년도 지방세(군세)를 감면하고 지원 대상자 누락방지를 위해 감면신청도 가능하며, 이미 납부한 군세가 있는 경우 대상액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세목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1회 연장·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해주고, 이미 고지한 지방세와 앞으로 과세될 지방세도 납부가 어려우면 6개월(1회 연장·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징수유예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정선군청 세무과(☎033-560-2288)로 전화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급식 통합시스템 운영

정선군이 지역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급식 공급을 위해 품질·유통·안전관리 시스템인 “친환경 학교급식 통합시스템”을 운영한다.

전국에서 최초로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모든 학생들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고 있는 정선군은 초·중·고 35개교 2,749명에 학기 중 중식비 16억 9,971만원을 지원하고 유치원·초·중·고 50개교 3,022명에 군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우수식재료 학교급식 지원에 따른 공급차액 2억 2,200만원을 지원하며, 학교급식지원센터 위탁운영에 따른 6,000만원 등 총 19억 8,171만원을 지원한다.

군은 올해부터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친환경 학교급식 제공을 위하여 1,6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통합운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스템 운영에 따른 환경설정 및 사용자 교육, 안내 데스크 운영, 원격지원 등 모든 행정적 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3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번 통합운영시스템을 통한 친환경 농·특산물 학교급식 지원으로 성장기 학생들에게 우수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의 건강한 심신발달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지역 내 생산되는 친환경 우수농산물 소비촉진으로 농가의 영농의욕 고취와 농가 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270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개최



정선군의회(의장 전홍표)는 1월 25일부터 2월 1일까지 제270회 정선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70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에 대하여 심의한 가운데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소비위축과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납세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군세 감면 동의(안)”를 원안의결 처리하였다.

또한 올 한해 펼쳐질 군정 전반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함께 군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정선 실현을 위한 미래지향적 대안 등을 제시하였다.

정선군의회는 새로운 행정조직 개편 이후 처음 열리는 임시회로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군민행복을 위한 새로운 도전으로 반등을 꾀하여야 하는 중요한 한 해만큼 각종 사업 현황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군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적극 펼쳐 나갈 것을 약속했다.

2021년도 연간 회기 운영계획

구 분	운영기간	주 요 안 건
제270회 임시회	1월말 ~ 2월초	● 2021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
제272회 임시회	4월중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73회 임시회	5월중	● 결산검사 위원 선임 ●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활동
제274회 정례회	6.10 ~	●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승인
제275회 임시회	7월중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76회 임시회	9월중	● 2021년도 군정질문 및 답변 ●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제277회 임시회	10월중	●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활동 ● 2022년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의 건
제279회 정례회	11.20 ~12월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2년도 본예산안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취업의 통해 - 당당하고 활기찬 노후를"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찾아 드립니다.

대한노인회 정선군취업센터에서는 노인복지향상의 일환으로,취업을 원하는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무료로 알선하여 드립니다.

■ 이용방법 : 방문 또는 전화

- ▶ 방 문 : 대한노인회 정선군지회 취업지원센터
- 정선을 봉양7길 16(정선종합복지관 1층)
- ▶ 전 화 : ☎ 033-562-2577

■ 알선직종 : 경비, 청소, 식당, 운전, 택배, 산림, 주유원, 가사도우미, 강사, 농촌인력 단순노무직 등

전문 농업인 양성 “아리아리정선 농업대학” 운영

정선군은 행복하고 살기 좋은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한 전문농업인 양성의 요람인 “아리아리정선 농업대학”을 운영한다. 정선농업의 발전에 필요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기술교육을 실시해 합리적인 농장 경영과 과학영농의 실천능력을 갖춘 전문농업경영인 양성으로 농산물의 고부가가치 창출은 물론 정선농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아리아리정선 농업대학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올해 13회를 맞는 아리아리정선 농업대학은 사과전문학과를 운영하며, 사과영농에 관심이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입생을 선발해 오는 2월 18일부터 9월 30일까지 총 22회 102시간의 학사일정을 진행한다. 사과 관련 전문강사를 초빙해 사과 수형 및 정지정정, 사과 결실관리, 병충해 진단 및 방제기술, 사과 품질관리, 사과 가공, 농업현장 체험 교육, 선도 농업인 사례발표 등 사과 재배 전반에 걸친 이론과 실무기술 습득으로 고품질 사과를 효과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전문

농업인 양성을 위한 교육을 진행한다.

지난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아리아리정선 농업대학은 대한민국 명품사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맛과 품질이 뛰어난 고랭지 사과를 재배하기 위해 많은 군민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까지 총 941명의 졸업생을 배출해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농업대학으로 자리잡고 있다.

정선 고랭지 명품사과는 산간지의 특징인 밤과 낮의 온도차에 의하여 높은 당도와 좋은 빛깔, 식감, 품질이 뛰어나 소비자들로부터 최근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2022년까지 300ha 이상으로 면적을 확대하여 연간 9,300톤 이상을 생산해 약 280억원 이상의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향후 지구온난화에 대응한 고랭지채소 작목전환을 통해 농업 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아리아리정선 농업대학은 정선 농업·농촌의 미래를 이끌어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한 배움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보다 다양화된 프로그램 개발·진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대설·태풍 자연재해 대비 풍수해보험 최대 91%까지 지원

정선군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예측 불가능한 국지성 호우 및 강풍, 폭설 등 각종 자연재해로부터 군민들의 재산을 보호해주는 풍수해보험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올해 주택·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상가·공장) 풍수해보험료에 대해 정부지원금(70%) 외에도 본인부담금의 70%를 추가로 지원해 풍수해 보험료의 최소 70%에서 최대 91%까지 지원함에 따라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는 군민들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주택 1,003건, 온실 352건(면적:278,574㎡)에 대하여 군민들이 풍수해 보험을 가입하였으며, 2019년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비닐하우스 피해 34건에 대하여 총 1억1,6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2020년 강풍 및 태풍 등으로 인한 주택피해 1건, 비닐하우스 피해

58건에 대하여 총 1억9,5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어 주민들의 피해복구에 큰 도움을 주었다.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중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닌 주택 지붕파손이나 비닐하우스 단순 비닐파손 피해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복구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풍수해보험 가입 시, 주택 지붕파손 면적이 2㎡ 이상일 경우 피해 면적에 따라 최대 보험가입금액의 25% 보상이 가능하며, 비닐하우스 전체 면적의 10%이상 비닐이 파손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10%를 보상받을 수 있다.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복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풍수해 보험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가입을 바라며, 풍수해보험 지원사업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정선군청 건설과(☎033-560-2479)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정선도박문제회복센터 개소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원장 이홍식)은 정선군 사복읍에 정선도박문제회복센터(센터장 임정민, 이하 정선센터)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개시한다.

2021년 2월 1일부터 기존 강원대학교가 위탁받아 운영되던 정선분소(고한읍)는 2021년 1월 31일자로 사업을 종료하고, 카지노 인접지역(정선, 태백, 영월)에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장기체류자 및 도박문제자에 대한 맞춤형 치유재활서비스 제공과 직업재활, 회복지원프로그램(동계지원등), 지역주민에 대한 예방사업 활성화 및 확대를 위해 직영으로

운영된다.

도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정선센터의 프로그램에 수시로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를 원하는 자는 정선센터 대표전화((☎033-592-8896)로 신청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주소, 강원도 정선군 사복읍 사복중앙로 53-2). 도박문제회복센터 설치·운영으로 카지노 인접지역의 도박문제로 경제적·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기체류자들의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농가부담 해소

정선군은 코로나19로 인한 민생경제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농촌의 영농비 절감을 위해 농업기계 임대료를 50% 감면한다. 농촌 고령화·부녀화에 따른 일손부족 해소와 농가 영농비 절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임대료를 1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50% 감면을 실시하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본소를 비롯한 신동분소, 임계분소 등 3개소에 총 61종 540대의 농업기계를 관내 농업인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한시적으로 농업기계 임대료 전액을 감면한데 이어, 이후 12월말까지 50% 감면을 실시하였으며, 지난해 한해동안 4,276농가에서 농업기계를 임대해 사용했다.

군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 전국 최초로 농업인이 필요한 시기와 장소에 농업

기계를 배송하는 농업기계 퀵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농업기계 임대 농업인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교육 및 농업기계 이용 실습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 내에 전기용접 실습장을 마련해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용접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농업기계 수리점과 거리가 먼 8개 읍·면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농기계 수리교관 2명을 배치하여 농업기계 순회 교육 및 수리를 지원하고 있다.

군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한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으로 지역경기 활성화와 농가의 경영비 절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신(新)기종 농업기계 임대 현장적용을 통해 농업경영의 안정화는 물론 농업기계화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방침이다.

정선군산림조합 원목재배용 버섯종균 신청접수 및 안내

정선군산림조합에서는 산림조합중앙회 산림버섯연구센터에서 엄격한 기준으로 생산된 원목재배용 버섯종균 우량 종균을 저렴한 금액으로 임가에 공급하고 있다.

표고 원목재배에 있어 품종의 종류로는 크게 고온성, 중온성, 저온성계통으로 나뉘는데, 이 중 생표고용으로 적합한 품종은 고온성과 중온성이며, 건표고용으로는 저온성과 중온성이 적당하다. 일반적으로 국내에서는 기후여건에 따라 남부지방과 일조량이 풍부한 충남지방은 저온성 위주로 재배를 많이 하고 있고, 온도 편차가 많고 분지형태인 중부지방은 중온성 및 고온성 품종을 많이 재배하고 있다.

또한, 자목 및 톱밥배지를 이용하여 표
고를 재배하려고 하는 임가는 자격여건

에 따라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을 통해 산림버섯재배시설, 표고버섯자목 및 표고버섯 톱밥배지구입비 등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산림조합중앙회 산림버섯연구센터(경기도 여주)에서 표고버섯 재배임가와 표고버섯을 재배하려고 하는 임업인을 대상으로 표고버섯 재배 기술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더불어, 2021년 산림조합 나무전시판매장 개장에 앞서 묘목 예약을 받고 있으니 버섯종균 구입신청 및 나무전시판매장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산림조합으로 문의하면 된다.

○접수기간 : 2021. 1. 4일.(월) ~ 2. 19.(금)

○공급시기 : 2021. 2. 24부터 순차공급

○문의처 : 정선군산림조합

(☎ 033-560-5600)

2021년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 접수

정선군은 도내 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통한 실질 임금수준 개선과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지원내용은 공제가입일로부터 5년간(60개월) 근로자가 매월 15만원, 기업이 매월 15만원을 불입하면 강원도와 정선군에서 매월 20만원을 지원하여 만기 시 근로자에게 3천만원을 지급한다.

- (기 업) 5년간 900만원 적립
(월 15만원 × 60개월)
- (근로자) 5년간 900만원 적립
(월 15만원 × 60개월)
- (강원도 및 정선군) 5년간 1,200만원
(월 20만원 × 60개월)

지원대상은 기업의 경우, 정선군 소재의 기업(사업체) 중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 소속 상용근로자 1명 이상인 기업과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근로자의 경우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원도인 근로자 중 지원 기간 동안 정선군 관내 소속 기업에 재직이 가능한 상용근로자 및 정규직이 해당되며 단, 지원 기간동안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강원도 내로 되어있어야 하며 근로자는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원도이어야 한다.

신청은 1월 18일부터 받으며, 정선군
경제과 일자리팀(☎ 033-560-2150)
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정선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지역 청장년을 위한
「정선 나비 캠퍼스」 운영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은 사람재생에서부터

정선군 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이용규)는 오는 2월 20일부터 10주간에 걸쳐 진행되는 청·장년 교육 프로그램 「정선 나비 캠퍼스」를 운영한다. 지역 청·장년을 대상으로 개인의 역량강화와 지역사회 활동기회 마련을 위해 추진되는 정선 나비 캠퍼스는 지속적인 인구감소, 일자리 부족, 인적자원의 부족으로 인한 악순환 속에서 지역의 청·장년들을 대상으로 실무형 교육을 실시하여 지역 인재들을 창조적 혁신 가로 육성하는 <마을기반 지역사회 인재 양성>, 전통적인 단발성 특강 방식을 벗어나 인문학, 문화콘텐츠학, 도시사회학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해 심도 있는 단계적 교육을 통한 <창조성 강화형 프로그램>,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경제성을 창출하고 중장기적인 비전속에서 활동 할 수 있는 <지역사

회 밀착형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진행된다.

개인의 창조력을 강화하는 <자기 디자인 프로그램>과 지역사회 활동을 돕는 <마을 디자인 프로그램>을 주요 내용으로 진행되는 정선 나비 캠퍼스는 맞춤형 교육방식과 대화와 실습을 겸한 상호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정선군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인구감소에 따른 도시의 쇠퇴를 막고 지탱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기업가적 청·장년 인재육성을 통해 도시재생에서 사람재생으로 한 단계 발전한 도시재생의 새로운 사례가 될 수 있도록 교육의 질 향상 등 교육과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인재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정선군 도시재생지원센터
(☎ 033-592-3030)

정선군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정선군 귀농·귀촌 성공사례 수기 공모전

‘여러분의 귀농·귀촌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관내 귀농·귀촌인의 다양한 삶의 모습과 직접 몸으로 체험한 이야기를 공유하고 공감하기 위한

‘2021년 정선군 귀농·귀촌 성공사례 수기 공모전’을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1. 접수기간 및 결과발표

■ 접수기간

: 2021년 1월 20(수) ~ 3월 5일(금)

■ 입상자 및 시상 :

입상자 발표 - 2021년 3월 19일(금)

입상자 시상 - 2021년 3월 25일(목) 11시

- 장소 : 정선군농업회의소 사무실

※ 표창장 및 부상 수여

2. 수상내용

구분	상금	수상 인원
정착상	상품권 50만원	1명
화합상	상품권 40만원	1명
행복상	상품권 30만원	1명
희망상	상품권 20만원	1명
미래발전상	상품권 20만원	1명

3. 기회제공

■ 공모전 입상자는 본인 희망 여부에 따라 귀농·귀촌 관련 교육 강사(유급) 및 멘토로 활동 지원

■ 입상작은 군보, 귀농·귀촌 소식지, 관련 기관지에 게재

4. 참가대상

■ 정선군 관내 3~10년 이내 정착한 귀농·귀촌인

5. 공모주제

■ 귀농·귀촌 준비부터 실행-정착까지 전 과정에 얹힌 다양한 에피소드

- 귀농·귀촌을 결심한 이유

- 귀농·귀촌 결심 후 가족 등의 동 준비과정

- 나 이렇게 귀농·귀촌에 성공 또는 실패했다. (경험담)

- 나만의 귀농·귀촌 성공법칙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tip)

- 귀농·귀촌 후 지역 주민과의 갈등 및 극복

- 귀농·귀촌 공동체 형성 및 활동 사례 등

6. 작품작성 방법

■ 워드, 자필 작성

■ A4용지 5장 이상

■ 작성 시 양식 제한 없이 자유롭게 작성하되 사진은 별도 첨부

■ 기본문구 내용은 블로그, 홈페이지에 첨부한 계획서에 있음

7. 접수방법

■ 접수 신청서 :

- 정선군 귀농·귀촌 네이버 블로그

- 정선군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 정선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 접수 방법 : 이메일 접수 / 방문 접수

- 이메일 접수 : jskff9815@naver.com

- 방문 접수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을 봉영5길 31, 2층 (사)정선군농업회의소

■ 접수 문의 : 033)562-3245

8. 유의사항

■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다른 작품과 유사한 사례는 입상에서 제외 또는 취소한다.

■ 응모한 작품은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작품은 군정홍보, 수기집, 홍보물 제작시에 활용되며 복제, 방송 및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정선군에 허락한다.

■ 작품의 의도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품의 일부를 수정 변경하여 재차발간, 지역신문 등에 이용할 수 있다.

■ 제출된 작품을 순수 창작물로서 저작권 및 초상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아야하며, 본점에 따른 모든 문제는 응모자가 책임을 부담한다.

주관 정선군 농업기술센터, 사단법인 정선군농업회의소

☎ 정선군 민원상담 콜센터 ☎



**“ONE-CALL,
☎ 1544-9053 ONE-STOP”**



易地思之

이은희 아라리명예기자

“쿵! 쿵!”
“할머니, 무서워. 무슨 소리야?”

외갓집에 다니러 온 손녀가 부스스 눈을 비비며 내 품을 파고든다. 시계를 보니 새벽 두시가 다 되어간다. 소리는 계속된다. 처음에는 얼마나 급한 일이면 이 늦은 시간까지 잠도 못자고 저럴까 곧 조용해졌겠지 아이를 다독이며 시간을 보냈다. 신경이 예민해져서인지 소리는 점점 더 크게 들리고 시간도 많이 지났다. 실례를 무릅쓰고 늦은 시간에 나도 문자를 보냈다. ‘잠을 잘 수가 없고 캄캄캄캄 놀라고 있다. 이미 늦은 시간이니 급한 일 아니면 낮에 하시라.’고, 잠시 후 조용해졌다. 갑자기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조금만 참을 꼴 하고 문자 보낸 일을 후회했다.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을 완벽하게 잡을 수는 없지만 이웃을 생각하고 조금만 조심한다면 줄일 수는 있을 것이다. 내 집에서 내 마음대로도 못하냐고 반박을 한

다면 할 말은 없지만 내 집 이기 전에 공동주택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 하면 좋겠다. 층간소음은 심심찮게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다. 최근에도 유명 연예인이 층간소음으로 인해 더 유명세를 타고 포털 검색량 상위에서 돌아다니며 이보다 더 극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도 종종 본다. 그때 ‘조금만 참지’ 라고 쉽게 말했지만 참고 있는 것을 상대가 모른다는 것에 화가 날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니 층간 소음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을 먼저 생각하는 배려심이 몸에 배어있어야 실천이 가능한 것이란 생각을 했다.

아파트 한 동에도 많은 세대가 있다. 지은 지 꽤 오래 된 우리 아파트는 이동이 거의 없는 편이지만 가끔 새로 들어오는 입주민이 집수리를 하는 경우가 있다. 공동주택의 특성상 건물에 소음이 심하고 위 아래층은 울림도 커서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

이기에 이해하고 참는다. 그렇게 새 식구를 반갑게 맞이하고 친한 이웃으로 지내며 정을 쌓는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은 요즘은 더 신경을 써야 함에도 피치 못 할 사정이라 게 있다. 이사철을 앞두고 리모델링을 하거나 오래 된 욕실을 개조하는 세대가 있다. 아파트 게시판에 공사를 알리며 양해를 구한다는 공고가 붙고 드릴로 벽을 깨는 소리가 들려도 그러려니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남들도 나처럼 무관심에 그러려니 넘겨주길 바라며 어려운 일을 시작했다.

가족 중 한 아이가 사정이 있어 아파트를 매입했다. 이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들 다 하는 리모델링 공사를 하기로 했다. 걱정이 앞서고 주변에 어떻게 양해를 구해야 할지 안절부절, 이웃이 겪어야 할 소음과 불편함을 생각하니 미안함에 몸둘 바를 모르겠다. 저녁에 쓰레기봉투를

한 아름 사왔다. 메모지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내용의 글을 쓰고 쓰레기봉투를 예쁘게 접어 지퍼 백에 넣고 그 위에 메모지를 붙였다.

산타할아버지 흥내라도 내 듯 늦은 밤 쓰레기봉투가 든 큰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섰다. 집집마다 우편함에 넣고 돌아오며 주민들께 불편하시더라도 부디 하루만 참아주소서 마음속으로 빌고 또 빌었다. 다음 날 아침 공사가 시작되자 드릴소리는 아파트 전체를 시끄럽게 했다. 불편해할 주민들을 생각하니 드릴로 내 머리를 두드리고 가슴을 때리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었다. 다른 집들 공사할 때 못 느꼈던 이 감정은 뭘까. 미안하고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었다.

무사히 하루가 지나고 조용한 오늘은 햇살도 따뜻하다. 옛 어른들 말씀이 ‘내가 남 되어봐야 그 사정을 알지’ 역지사지가 답이었다.

우리 고장 문화재 이야기

천년고찰 정암사를 찾아내다(정암사 발굴조사)

정선군 학예연구사 김진한

우리군 유일의 전통사찰인 정암사의 역사성과 사역규모를 검토하기 위해서 2013년, 2014년, 2018년, 2020년 네 차례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발굴조사는 세 군데 건물지에서 이루어졌다. 건물지 1은 수마노탑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위치한 천변 지역이고, 건물지 2는 적멸보궁 남쪽, 건물지 3은 일주문 북서쪽 지역이다.

2013년에는 건물지 1구역에 대한 정밀발굴조사와 건물지 2·3의 시굴조사를 실시하였고, 2014년 건물지 2구역의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18년에는 건물지 2구역의 미조사 지역과 건물지 3구역에 대한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2020년에는 건물지 2구역의 추가조사를 진행하였다.

그동안의 발굴조사 성과를 살펴보면, 우선 건물지 2-8호에서 확인된 고려전기의 2줄 고래 구들시설은 강원 지역의 산지사찰인 정암사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구조로 고려 후기 건물지 내부에 전면적으로 구들시설이 설치되기 이전 과도기 단계의 구들시설 구조로 판단된다. 이러한 구들시설은 불을 지피는 화구부 시설에서 연기가 빠져나가는 배연부 시설까지 완벽한 구조로 확인되어 고고학 및 건축학 등 학술적인 면에서 연구 가치가 매우 높다.

또한, 출토유물 가운데 세판 연화문 수

막새를 비롯해 고식 선문기와가 출토되어 정암사의 초축 연대를 9~10세기로 추정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귀목문 막새 등기와들과 청자 등의 유물이 다량 출토되어 정암사는 12~13세기에 크게 번창했던 사찰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출토된 명문기와 중 ‘교율정암사(敎律淨庵寺)’, ‘정암율사(淨庵律寺)’ 명문은 일연이 편찬한 『삼국유사』에 기록된 문헌과 동일하여 고려시대에도 정암사라고 불렸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에 걸쳐 불교가 성행할 때 교학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종파인 5교9산 중 한곳으로 판단되는 자장의 계율종 사찰터를 발굴한 첫 사례이기도 하다.

명문 중에는 제작시기를 알 수 있는 것도 있다. ‘대평삼(太平三)’의 명문은 ‘태평(太平)’에 해당하는 연호로 기와제작법을 고려했을 때 고려초기의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기와들은 1021~1030년間に 제작된 것을 알 수 있으며, ‘대평삼’ 명문에 의거해 볼 때 1023년의 절대연대 추정이 가능하다.

그동안의 발굴조사를 통해 총 16기의 건물지가 조사되어 고려시대에는 크게 번창한 중요 사찰이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건물지 2구역은 수마노탑과 연계성이 높은 곳으로 적어도 고려시대 이전에는 수마노탑이 건립되어 있었음을 짐

작게 한다. 이는 수마노탑의 문화재적 위상과 국보로서의 가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중요한 고고학적 자료로 평가된다.



「2018, 건물지2-8호 온돌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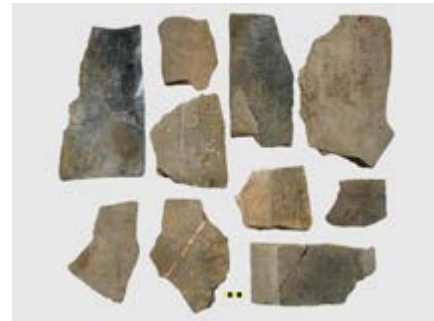
「2018, 정암사 출토유물」



「2018, 세판연화문수막새(통일신라)」



「건물지1」



「2014, 명문기와」



「건물지2-1」



「2014, 고식선문기와(통일신라)」



그들은 나의 모든 것을 보고 있다.

박현준 아라리명예기자

장면 1.
겨울이 매섭다. 하지만 곧 봄이 올 것이다. 봄이 오면 집 마당에 꽃을 심어야겠다는 생각에 인터넷에서 마당에 어울릴만한 나무나 꽃 등 각종 식물을 검색하여 본다. 그런데 마땅한 것이 없다. 그래서 사기를 포기한다. 나중에 시간을 내어 꽃집에 가서 사야겠다고 마음먹는다. 그런데 다음 날 신문을 보기 위해 인터넷 브라우저를 여니 화면 오른쪽에 조경용 나무들과 봄꽃, 그리고 꽃씨 등 식물 관련 광고가 잔뜩 나온다. 꽃을 사라는 하늘의 뜻인가 보다 해서 광고에 나온 상품을 클릭하여 기분 좋게 상품을 산다.

장면 2.
보험 회사에 전화로 확인 할 민원이 생겼다. 그런데 전화번호를 모르겠다. 인터넷에서 00생명이라 치고 검색을 한다. 그리고 통화를 해서 간단히 민원을 처리했다. 그리고 다음날, 업무를 보기 위해 컴퓨터에서 SNS를 실행시켜보니 이상한 점이 발견된다. 자꾸 보험 회사 관련 된 광고만 화면 하단에 나온다. 보험 회사 민원 때문에 내가 신경을 써서 그런가보다 생각하며 지나친다.

기억을 더듬어 보면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경험들이 한 두 번씩 있다. 물론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러한 현상을 우연이겠지? 또

는 내가 신경을 쓰다 보니 자꾸 보이는가 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때로는 이 제품을 구매하라는 하늘의 뜻인가 보다 생각하며 물건을 사고 만다. 하지만 그것은 하늘의 뜻이 아니라 광고주의 뜻이고, AI의 뜻이다.
부연을 하면 위의 두 장면은 우리가 매일 습관처럼 접속하는 포털들이 광고 업체와 협력으로 진행하는 사용자 맞춤형 광고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즉, 내가 사용하는 검색과 행동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분석하여 사용자에게 가장 필요한 상품의 광고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 말은 내가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하는 모든 행동이 광고 회사나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넘어가고, 그들이 나에게 맞는 상품에 대한 광고를 강제로 보여주면서 해당 상품을 홍보하고 팔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은 컴퓨터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과도 연동되어 동시에 진행된다. 물론 이러한 기능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고, 우리에게 공지된다. 하지만 일반인이 하기에는 너무 번거롭고 귀찮고 어렵다.
우리는 평소 길을 다니면서 수많은 카메라에 노출되고 저장된다. 거리에 설치된 CCTV, 자동차에 장착된 블랙버스가 그런 것들이다. 그리고 그렇게 녹화된 영상만 조합해도 한 개인의 동선은 대부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경찰들은 범죄자를 잡는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실생활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컴퓨터나 스마트

폰을 사용하는 온라인상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난다. 내가 아무리 방문 기록이나 검색 기록을 지워도 나의 행적은 이미 어딘가에 기록된 후 지워지는 것이다. 실생활에서 찍히는 감시 카메라처럼 온라인에서 내가 아무리 기록과 추적을 거부해도 이것을 막기는 쉽지 않다. 코로나 19 이후 디지털 기기에 대한 수요 및 필요성이 급격히 대두되었다. 그리고 방역을 위해 우리 모두의 일거수일투족이 여러 가지 수단으로 기록되고 있다. 안전한 사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이러한 감시나 기록이 필요하다. 하지만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생각한다면 조금은 불편한 감시일 수 있다.
우리는 신문이나 각종 미디어를 통해 유명인이 우연히 찍힌 사진이나 영상으로 인해 곤욕을 치르는 것을 본다. 그리고 나는 관참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진정 어리석은 것은 그렇게 생각하는 나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록된 나의 사생활 정보가 악용될 때 우리도 그 유명인과 같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코로나 19 방역으로 인해 우리의 일상은 더더욱 세밀하게 기록되고 있다. 그렇다면 그렇게 기록된 개인들의 정보는 잘 보호되고 있는지 한번쯤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며, 디지털 세상에서 개인의 사생활을 최소한이라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우리 스스로도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요즘이다.

 약사 윤근형의 건강상식-59회

저염식사

균형잡힌 식사와 충분한 운동은 우리의 몸을 강건하게 하여 장수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필자의 기억에서 아직까지 기억되는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본다면 보리 이삭이 필때까지는 식량이 떨어져 가난한 사람은 끼니를 잇기가 어려웠고 심지어 굶는 사람도 많았다.
산이나 들에서 산나물을 뜯어다가 곡식을 약간 넣고 물을 많이 부어 멸건 죽을 쑀어 먹으면서 보리가 낱때까지 근근히 연명한 시기를 사람들은 보릿고개라 하였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들은 이미 옛날일이 되어 버렸고 먹을 것이 풍부한 오늘날에는 영양분의 고른 섭취가 오히려 문제가 되고 있다.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 식품이니 하여 지방을 지나치게 섭취하는 반면 비타민, 미네랄, 칼슘 등 건강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는 부족하게 되어서 영양의 과다섭취나 평준화된 섭취가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성인이 되면서 소금의 과량섭취가 질병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음식의 맛을 내는 소금은 주성분이 염화나트륨(NaCl)이다.
나트륨(Na)이 우리몸에 흡수되면 혈장, 세포간 액의 주성분이 되어 체내의 수분대사 산, 염기의 균형 세포막의 투과성 및 정상적 근육 활동에 관여한다. 그리고 체액의 삼투압을 유지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된다. 체액중의 소금 농도가 줄면 체액도 줄고 소금이 증가하면 체액도 증가하게 된다. 세포내의 삼투압은 칼슘에 의해 유지되고 세포밖의 삼투압은 소금에서 나오는 나트륨에 의해 유지되어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칼슘이나 나트륨이 어느 한쪽이라도 과다하게 섭취하거나 모자라게 된다면 균형이 깨져 생리적으로 이상이 오게 된다.
인체에서 염분의 사실이 심하면 사람들은 기운을 차리

지 못하게 되고 소금이 부신피질에 작용을 해서 힘을 내게 하는 작용도 가지게 된다. 가령 운동이나 노동으로 땀을 많이 흘렸을 때 약간의 소금기가 들어있는 음료수를 마신다면 기분이 좋아지고 피로감을 없애 주는것도 이 소금의 역할 때문이다.
음식을 짜게 먹는 기호는 후천적으로 형성된 습관으로 한국인의 경우 짜게 먹는 식습관은 이미 어렸을 때 부터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음식은 되도록 싱겁게 먹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1일 소금량은 10g 이하로 하고 있다.
우리의 식생활이 많이 개선되었다 하더라도 소금의 섭취량은 아직 과량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우리의 식탁에서 국 종류는 반찬에서 첫번째로 준비되는 음식이며 장류, 젓갈, 장아찌등은 옛부터 내려오는 저장식품으로 또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음식을 짜게 먹는 습관을 쉽게 변경시킬수는 없지만 실제의 식생활에서 소금의 피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은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채소류와 과일류를 먹는 것이다. 칼슘이 체외로 배출이 될 때 나트륨도 함께 끌고 나가기 때문이다
특히 소금은 우리의 식생활에서 음식맛의 대명사이며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면 역겨워서 먹을 수 없을 것이다. 적당히 넣어 우리몸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하며 과량 섭취로 인하여 성인병을 유발하게 된다면 그것 또한 이제는 문화 국민이라고 할 수 없다.
우리는 덕담에서 사회에 필요한 소금이 되라고 한다. 적당히 잘 조절을 한다면 질병없는 사회가 되고 자기 자신은 평화가 깃든 그런 건강인이 될 것이다.

밤의 사색

임계리 달란길 장태심

어둠이 내린다
소리죽여 흐느끼는 빗소리와 함께
자연이 주는 안식을 벗어나며
가슴 밑바닥에 그리움을 삼킨다.

많이도 보고 파진다.
나의 영혼 같은 존재들...
내가 끌어 안아야 할
사랑하는 모든 것들
그리운 모든 것들

바람이 마음을 전한다.
실종되어 버린 현실을 투영하듯
지칠줄 모르는 우리의 이야기
행복의 기름진 낱말들앞에

허공을 배회할 뿐
이 밤을 재촉하고 있다.



빅체인지(코로나19 이후 미래 시나리오)

지은이 최윤식 펴낸곳 김영사
서평 배덕춘 아우라지 독서회

이달에는 ‘빅체인지’라는 이름의 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이후의 미래 변화에 관한 책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코로나19 이후 3년내 닥칠 변화와, 10년이상 이어질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빅체인지’의 저자 최윤식 박사는 미래학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저명한 한국인입니다. 총 50여권의 책을 출간했고, 미국, 한국, 중국을 오가며 미래와 관련된 예측, 자문, 교육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사회가 현실을 통찰하고 더 나은 미래, 바람직한 미래를 창조해 갈 수 있도록, 세계최고의 예측능력을 발휘하여 미래전략을 지원하는 것을 소명하며 산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2020년 초에 확산된 코로나19 감염병은 현재 전지구적으로 나타난 피해규모로만 보아도 역대 급 전염병입니다. 2003년의 사스, 2009년의 신종플루, 2012년 메르스 때와는 차원이 다르게 엄청난 전염속도와 사망률로 이 세계를 공포와 충격으로 몰아 넣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때, 무수히 많은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14세기중엽에 있었던 흑사병, (1억명이상 사망), 1918-1919년

에 전세계에 걸쳐 유행했던 스페인 계에 걸쳐 유행했던 스페인 독감(1차세계대전 사망자 900만명보다 11배 많은 거의 1억명 사망), 1960년대 후반의 천연두(80년 동안 3억명 사망) 등은, 특히 세상에 큰 변혁을 가져온 어마무시한 재앙이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감염병도 그것들에 못지않게 역사에 크게 기록될 전염병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전염병의 흑역사에서, 반드시 알고 대비해야 할 것은, 전염병은 돌발적인 일시적 사건이 아니라, 지구촌의 정치, 경제와 개인 생활환경 등 인간사 전체 흐름을 바꾸는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점입니다. 중세시대를 강타했던 페스트병은 엄청난 인구감소를 불러와 그 시대의 근간 질서인 봉건제도를 붕괴시키는 대변혁의 원인이 된 바 있습니다. 또 스페인독감은 20-40대 청장년층의 사망율이 높아 엄청난 규모의 청장년이 사망하면서 결혼율, 출산율등을 급격히 떨어뜨려 도시들을 황폐화 시켰었고, 천연두도 남아메리카 잉카제국의 문명을 일거에 무너뜨린 장본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감염병은,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예측불허의 변화를 야기할까요?

이 글을 쓰는 오늘이 바로, 우리나라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지 꼭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날 이후 지금까지 우리인 평범한 일상을 상실했습니다. 마스크를 써야해 얼굴마저도 감추고 살아야 했습니다. 비 대면이 일상화 되었습니다. 경제가 마비되고, 감염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대부분의 시간을 세상과 격리 시켜야 했습니다.

그 힘겹던 일년이 지나, 이제 백신이 나왔습니다. 확산할 수 없지만 코로나19에 대한 출구가 희미하게나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 준비가, 아마도 ‘빅체인지’ 같은 책을 읽어 보아야 할 이유 같은 이유라 생각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방도가 있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의 터널 너머에 희망의 시선을 두어야 할 때입니다. 올 설날엔 막연한 새해 운세를 볼 것이 아니라, ‘빅체인지’ 이책을 통해 변화의 물결을 예측하고 과학적인 새해 설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라리 별과 함께

정선읍 김은수

우리르니 청청하늘
청산은 울음치고
떨어져간 삶 생각나
뜰앞에 나섰더니

속눈썹
초생달 모습
수줍다고 반기네

칼바람에 팡팡열어
조양강 잠에 들고
저려오는 마음으로
밤하늘 쳐다보니
애절한
정선아라리
별과 함께 소리하네!



밤 눈

전운호

오래 참아온 말들이 굳어

화석이 되는 밤

추억도 공소시효가 있어

사랑한다고 언제까지 잡아둘 순 없겠지

포승줄에 묶여 실려가는 시간들

번호인도 없이 유죄가 되고

종신형 받을 후회는 어쩔까

불타는 겨울 여윈 눈 내리네

겨울이 오면 우리는 좁은 공간 속에 갇힙니다. 그리고 지나간 날들을 회상하게 되지요. 지난 한 해는 역질 때문에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새해에는 악몽들을 떨치고 아름다운 봄을 만나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겨울 동안 안 좋았던 기억들을 정리해야겠지요.

전운호

정선초, 정선중 졸업

1991년 월간 현대문학으로 등단

사랑과 그림

범바위 풍경

4P, oil on canvas

김 선 희 작



찬 바람이 옷깃을 파고 들어도

봄을 기다리는 이월이다

얼음장 밑으로 흐르는 물소리가

싹을 틔우고,꽃을 피우려는 봄을 재촉한다

봄을 가장 기다리게 되는 이월....

강기희 작가의 新 정선기행2

와인폭포 앞에서 와인 한 잔 할까요?

산처럼 물처럼 정선은 어딜 가나 산이요, 골짜기다. 물은 산을 넘지 못하고 산을 휘돌며 흐르는데,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휘감아 치는 물길은 가히 장관이다. 그토록 아름다운 물길을 따라 가수리로 간다. 가수리(佳水理)는 함백산에서 발원한 지장천과 검룡소에서 발원하여 정선읍내를 굽이친 조양강이 만나는 마을이다.

두 물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가수리는 정선의 또 다른 ‘아우라지’라 할 수 있으며 합수되는 지점부터 강 이름도 ‘동강’으로 바뀐다. 강이 만든 너른 충적토는 사람이 살만한 땅을 제공했고, 강 건너 북대마을에서는 철기시대 유물이 출토되기도 했다. 가수리는 1990년대 중 후반 동강댐 건설 계획으로 홍역을 치렀던 마을인데, 2000년 댐 건설 백지화로 평온을 되찾았다. 댐이 건설되었다면 지금쯤 수몰 마을이 되었을 가수리 마을은 겨울이라 고즈넉하다.

한자로 아름다울 가(佳)와 물 수(水)를 쓰는 가수리는 예로부터 물이 아름다운 마을이다. 여율이 아름다운 ‘가탄(佳灘)’과 물이 아름다운 ‘수미(水美)’ 마을이 합쳐지면서 생긴 지명인데, 그래서인지 마을 어딜 둘러보나 풍광이 수려하다.

가수리의 명물은 굽이친 물길이라 하지만 물빛은 예전만 못하다. 푸르고 맑게 흐르던 가수리 물을 탁하게 만든 건 상류에 있는 도암댐이다. 나는 한때 대한민국에서 댐을 해체하는 역사를 만들어보겠노라 도암댐 해체 운동을 한 적 있으나 정부를 상대로 싸워야 하는 게 힘들어 포기했다. 도암댐만 해체한다면 가수리 물빛은 예전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 텐데, 아쉽기만 하다.

갈수록 탁해지는 가수리 물을 보면 화가 치밀기도 하지만 다행스럽고 반가운 일도 있다. 고한사북 일대의 탄광이 성업 중일 때만 해도 가수리로 흘러드는 지장천은 검은 석탄 물이 흐르는 죽음의 강이었다. 수중 생물이 전혀 살 것 같지 않았던 지장천은 탄광이 문을 닫으면서 살아나기 시작했다. 지금도 폐광에서 중금속 섞인 물이 가끔 쏟아지지만 지장천 물빛은 몇 해 전에 비해 확실히 좋아졌다.

영하의 날씨였지만 겨울 햇살이 좋았다. 가수 분교 학교 마당에 있는 느티나무 앉아 잠시 있었다. 6백 년 가까운 세월 가수리 사람들의 생멸을 지켜보았을 느

티나무는 미동도 없이 흐르는 강을 응시하고 있었다. 말이 6백 년이다. 그 시간을 되짚어보니 조선국이 개국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다. 세종대왕 등 역사 속 인물들이 살아있던 그 시절, 누가 강 언덕에다 느티나무 한 그루를 심어 놓았을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 나도 모르게 숙연해졌다. 흐르는 강을 멍하니 바라보다 지장천을 거슬러 오르기로 했다. 마침 지난 연말 가수리에서 광덕리로 이어지는 다리 공사가 마무리되어 걷기도 차를 타고 움직이기도 좋아졌다. 장마 때만 되면 고립을 피하지 못했던 가수리 마을로서는 광덕 가는 길이 생기면서 오랜 숙원을 해결했겠으나 여행자의 입장에서 보면 미지의 땅을 탐험할 수 있으니 좋다.

새롭게 난 길은 드라이브 코스로도 훌륭하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주변의 경치는 아름답기만 하여 선경이 따로 없다. 이럴 때 버릇처럼 나오는 표현이 있다.

“정선은 어딜 가나 아름답다.”

사실이 그랬다. 정선은 어디로 걸음을 옮기나 계림과 티벳을 넘어서는 풍경과 아름다움이 있다.

잘 만들어진 길을 따라 지장천을 거스른다. 급할 일이 없기에 속도를 최대한 줄이며 간다. 가는 길에서 만난 풍경 하나에 멈춰서며 차를 멈추었다.

마주 보이는 풍경은 언젠가 귓전으로 들었던 와인폭포였다.

“그래, 화이트 와인을 마실 때 저런 잔으로 마셨었지”

와인 잔을 닦았다 하여 와인폭포가 된 폭포는 겨울임에도 물이 시원하게 흐르고 있었다. 넘쳐 쏟아지는 물이 잔의 손잡이로 보이니 엉락없는 와인 잔이었는데, 그 모습이 꽤 신기하기도 하고 신비하기도 했다. 누가 저토록 귀한 풍경을 만들었을까?

사연은 이러했다.

와인폭포가 만들어지게 된 것은 지역 사람들이 농토를 만들기 위해 생각해낸 일이라고 한다. 물줄기를 돌리지만 한다면 너른 땅을 개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힘들긴 해도 저 바위산을 뚫어 물길을 돌리면 될듯싶은데, 어찌 생각하는가?”

“농사지를 땅이 생기는 판인데 무슨 일인들 못 할까.”

그렇게 시작된 일이었다. 56년 전인



1965년에 있었던 일이었다. 지금과 같은 중장비도 없던 시절이라 무모하다 싶었다. 하지만 농토만 생긴다면 무슨 일이라도 해야 할 절박함이 있었다.

바위산을 깨기 시작했다. 깨지고 부서진 돌을 나르는 일도 쉽지 않았다. 바위산이 조금씩 낮아지면서 농토가 생길 것이라는 기대감도 부풀어 올랐다. 어른과 아이 할 것 없이 마을 사람들이 다 달려들었다.

견고하던 바위산이 두부 찰리듯 잘려 나갔다. 작업 중에 상처를 입어도 견딜 만했다. 많은 시간이 흘렀다. 마침내 두 동강이 난 바위산 사이로 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와, 물이 흐른다!”

다들 환호성을 질렀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물길을 만드는 것까지는 성공했지만 물길 전부를 돌리는 일은 쉽지 않았다. 공사는 결국 실패로 끝났고, 애써 만든 물길은 오랜 세월 방치되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다. 골짜기를 찾았던 여행자들의 눈에 이상하게 생긴 폭포가 들어왔다. 사진이 하나둘 공개되었고, 와인폭포라는 이름도 붙었다. 그 사이 아무도 찾지 않을 것 같은 골짜기로 길이 났고, 사람이 찾아 들기 시작했다.

와인폭포에 얽힌 사연은 짧아다 못해 슬프기까지 하다. 허탈함에 젖었을 사람들을 생각하면 와인폭포를 아름답게만 보는 게 미안할 정도다.

와인폭포는 숨어있는 풍경 중 하나였다. 가수리에서 광덕 가는 길이 뚫렸으니 숨어있던 다 틀린 듯싶다. 주변 경치가 좋아 봄이 되면 드라이브를 즐기는 차량과 트레커와 MTB를 탄 라이더들이 다투어 올 듯하다. 요란할 필요는 없지만 그들을 맞이할 준비 역시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와인폭포를 돌아 다시 길을 떠난다. 적벽을 지나고 다리를 건넜다. 길에서 만나는 풍경을 보고 있노라니 욕망보다는 안빈낙도를, 절망보다는 희망이라는 단어가 자꾸 생각났다.

송어 양식장이 있는 마을 광덕쯤에서 차를 멈추고 개울로 내려갔다. 한여름이면 물살을 거슬러 오르는 송어와 플라잉 낚시를 하는 모습을 만날 수 있는 곳인데, 물안개까지 낀 날이면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하다.

가수리에서 선평까지는 30리 물길이 구불구불 이어져 있다. 지금이야 길이 포장되고 다리가 놓였지만 석탄 물이 흘러 물을 첨병거릴 수도 없던 시절엔 나무다리로 건넜다. 선평에서 가수리까지 놓인 나무다리는 열일곱 개나 되었다.

그 시절 선평역에서부터 낙동에 사는 친구 집을 걸어서 간 적 있었다. 나무다리는 가끔 흔들렸고 중심을 잃고는 물에 빠지기도 했다. 친구네 집에 도착했을 땐 낙동농악이 한바탕 펼쳐지고 있었는데, 너른들엔 벼가 누렇게 익어가고 있었다.

낙동농악대의 신명 난 가락은 지금도 귓전에 쟁쟁한데, 아무리 더듬어 봐도 물에 빠진 곳이 어디쯤이고 친구네 집은 어디였는지 짐작조차 되지 않았다. 교복을 입던 1978년의 일이니 세월이 많이도 흘렀다.

차를 몰아 쇠재를 넘었다. 가수리와 광덕리 구간 길이 열리고서야 가능했던 여정은 이렇게 마무리 된다. 기우산과 조양산 병방산을 크게 한 바퀴 돈 셈인데, 하루가 짧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천변에서 만난 버들강아지가 솜털을 올리기 시작했다. 봄이 멀지 않았다.



강기희 정선초·중·고 졸업 1998년 문학21 신인상으로 등단.
정선 덕산기계곡에서 창작활동과 함께 '숲속책방'을 운영하고 있다.

여량면, 아리랑의 서정이 넘쳐 나는 곳

글 권혜경 정선신문 문화컨텐츠사업국
사진 이해진 고한들꽃사진관대표



아우라지 합수지점 위의다리(오작교)



와와버스타고



정선에 유일하게 남은 문화유산인 빨래터(여량리)

아우라지는 정선아리랑의 대표적인 발
생지의 한 곳으로서, 예부터 강과 산이
수려하고 평창군 대관령면에서 발원되
어 흐르고 있는 구절리 쪽의 송천과 삼척
시 하장면에서 발원하여 흐르고 있는 임
계면 쪽의 골지천이 합류되어 "어우러진
다" 하여 아우라지라 불리우고 있으며 이
러한 자연적인 배경에서 송천을 양수, 골
지천을 음수라 칭하여 여름 장마 때 양수
가 많으면 대홍수가 예상되고, 음수가 많
으면 장마가 풀린다는 옛말이 전해오고

있다.

아리랑 가락이 흐르는 강변을 느끼게 건
다보니 점심식사 시간, 정갈한 밥상을 차
려내는 옥산장에서 곤드레 나물밥 정식을
먹은 일행은 다시 느긋한 걸음으로 여량면
골목들을 걷는다.

레일바이크역 앞의 주례마을 보고 아우
라지마걸리 양조장을 구경하고 길을 건
너 정선군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빨래터
를 가 본다. 마침 동네 어르신 한분이 빨

래를 하고 계셔서 괜히 반갑다. 어르신의
손에 있는 흰 빨래가 환하게 빛난다.

“김장 배추들을 여기서 씻은 지 얼마 안
되었어~ 나는 집에 세탁기가 있어도 그냥
하루에 한번은 이렇게 나와 빨래를 해,
하다보면 옛날 생각도 나고 다시 젊어지는
듯 싶기도 하고... 너무 좋아” 일행들은 즐
거운 수다를 한참 떠다. 빨래터가 유일한
소통의 장소이던 시절의 아낙들처럼 말이
다. 빨래터를 경험해 보지 않았던 우리에
게는 정말 새로운 경험이었다.

빨래터를 나서니 이제 집으로 돌아 갈 시
간, 짧은 산골의 겨울 해는 이미 앞산 너머
로 넘어 간지 오래, 4시 여량터미널을 출발
하는 버스를 타고 멀리 아우라지 강가로 눈
길을 보내자니 저절로 흥얼거려지는 아라
리 한 자락~!

“아우라지 뱃사공아 나 좀 건너 주게~!
싸리골 울동박이 다 떨어진다.
떨어진 동박은 낙엽에나 쌓이지 잠시 잠
깐 넘 그리워 나는 못 살겠네”

시간이 남는다면... 정선아리랑 전수회관

정선아리랑을 보고 듣고 부르고 느낄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그 의미가 크다.
이곳 전수회관은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
1호인 정선아리랑을 전승·보급하기
위해 세워졌다. 운영의 주체는 정선아
리랑전수회, 전수회관을 방문하는 관광
객들에게 정선아리랑을 무료로 가르쳐
준다.



전수회관에서 정선아리랑 배우기

여행팁

아우라지에서는 직접, 줄 배인 아우라지
호를 타고 강을 건너볼 수 있다.

아우라지호의 운행 기간은 3월부터 11
월까지 9시부터 18시까지 이용 가능하며,
매주 화요일은 휴무이고 무료로 이용이
가능.

관리실 010-4193-2970



아우라지 뱃사공. 김진갑

함께 떠난 군민

여성타악그룹 '선을타고' 정영옥, 박태
자씨 정선문화원 여성 타악동아리로 시
작해 십년을 타악기에 매달린 5명의 멤
버(이보령, 박태자, 김혜인, 유희경 그
리고 리더인 정영옥)들이 모인 군내 유
일한 여성타악그룹 '선을타고'의 리더
와 멤버이다. 최근 프로 선연을 하고 본
격적인 활동을 준비중이다. 사물놀이가
주 종목이고 선반설장고, 진도북춤 그
리고 아리랑공연까지 소화한다.



함께 떠난 군민. 박태자(좌), 정영옥(우)

여량터미널 방면 버스 시간표

정선터미널 -> 여량터미널

06:40/09:20/10:45/11:55/
13:25/14:30/16:00/17:25/
18:50

여량터미널 -> 정선터미널

08:00/09:55/11:25/13:15/
14:05/15:10/16:35/18:45/
19:25

교통검색

<http://www.jeongseon-pti.com>



산을 타러 가십니까?



산을 태우러 가십니까?

물범 흡연과 취사, 산림을 없애는 무기입니다.
산을 타러 가셨다면, 산은 태우지 마세요

[산 불 예 방 안 내]

○ 봄철 산불조심기간 : 2021. 2.1. ~ 5.15.

○ 산불신고

- 정선군 산불상황실 033-560-2423, 2157

- 정선국유림관리소 033-560-4248

- 읍면행정복지센터 및 소방서나 경찰서 등

○ 산불방지 규칙 지키기

- 입산통제 구역 등 출입금지

- 입산 시 화기물 휴대금지

- 쓰레기 및 농산부산물 소각행위 금지

- 지정된 장소 외 취사, 야영, 흡연금지

- 입산 시 입산신고 절차 후 입산하기

2021년도 정선장학회 장학생 선발안내

장학생 선발 개요

선발인원 및 장학금 지급액

- 고등학생 : 50명 내외, 1인당 연간 1,000천원

- 대 학 생 : 310명 내외, 1인당 연간 3,000천원

※ 최종 선발 인원은 이사회에서 결정

선발기준 :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청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접수기간 : 2021. 2. 22.(월)~3. 12.(금) 18:00까지(토 · 일 · 공휴일 제외)

※ 공고기간 : 2021. 1. 18.(월)~3. 12.(금)

접수방법

- 고등학생 : 학교장이 선발 · 추천하여 학교에서 일괄 제출

- 대 학 생 : 신청인(또는 학부모)이 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접 수 처 : 읍면행정복지센터 총무팀 또는 장학회사무국 ☎ 033)560-2186

선발결과 안내 : 4월 중 개별통지 및 장학재단 홈페이지 공지

강원도 경력단절여성등 구직활동 지원사업 안내

모집기간 : 2021. 1.25. ~ 2. 9.

지원대상 : 모집시작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원도인 여성

☞ 구직등록기관(워크넷)에 구직 등록한 여성(신규등록 포함)

☞ 만35~54세 미취업 경력단절여성(미혼, 무경력자포함)

☞ 가구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강원일자리정보망 <http://job.gwd.go.kr>

지원내용 : 구직활동지원금+참여자 맞춤형 고용서비스 지원

☞ 구직활동지원금 : 1인 최대300만원(50만원6개월)※ 생애1회 지원

☞ 교육비, 교재 및 도서구입, 시험응시료, 식비, 교통비 등으로 사용

☞ 취업성공금 : 지원금 수급중 취업성공시 근속 3개월 후 50만원 지급

☞ 고용서비스 : 온라인 교육훈련, 취업상담, 컨설팅, 역량강화프로그램등

지원방식 : 온라인포인트 배정 및 체크카드 사용 후 현금방식

문 의 처 : 정선여성새로일하기센터 ☎ 033)560-2737

2021년 결혼이민자 고향방문 지원사업 안내

※ 코로나 19의 지속확산으로 인해 2021년 결혼이민자 고향방문 지원사업은 잠 정 중단되며, 사업재개 시 홈페이지 및 군청 소식을 통해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문 의 : 여성청소년과 여성정책팀 : ☎ 033)560-2977

75세 이상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 지원사업

- 만75세이상, 정선군 거주자

- 분기별 3만원, 연간12만원 이용권 지원

2021년 1월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세요.



정선군에서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2021년 1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들께 목욕 및 이·미용 이용권인 “실버에티켓”을 지급합니다.

□ 75세 이상 어르신

구 분	내 용
이용절차	정선군 만75세 이상 어르신들은 21년 1월부터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을 가지고 내방하여 실버에티켓을 수령합니다.
지원금액	분기별 3만원 상당의 실버에티켓을 지급(연간 12만원 상당)
이용방법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수령한 실버에티켓으로 관내 협약체결된 목욕 및 이·미용업소에서 서비스 이용 후 해당 요금을 실버에티켓으로 지불 (지급된 이용권을 초과하는 요금은 본인부담입니다.)
유의사항	이용권은 분기별로 지급하며 찾아가지 않은 이용권은 폐기처분되니 반드시 분기별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목욕 및 이·미용 협약업소

구 분	내 용
이용절차	어르신들이 서비스 이용 후 실버에티켓으로 요금을 지불하면 사용된 실버에티켓을 모아 사업장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복지팀에 청구
청구서류	사용한 실버에티켓,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최초 청구시 1회만)
청구시기	수시청구 가능
유의사항	당해연도 12월20일까지 청구 가능

□ 문의 : 해당읍면 복지팀, 군청 복지과 경로복지팀 ☎ 033)560-2975

시켜? 말어?

일단시켜



일단시켜

강원도형 배달앱 '일단시켜' 설치 방법

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에서 “일단시켜” 검색

앱 설치 및 회원가입

내 주소(배달주소) 등록

♥ 가맹점 가입문의 ☎ 1899-4242, 033)560-2440

2021년 정선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사업 안내

신청접수 : 연중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 「주민등록법」 상 정선군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만30세 이상 50세 미만의 혼인경험이 없는 남성으로, 국제결혼 후 혼인신고 및 배우자의 외국인 등록을 마치고 배우자와 같이 거주하는 자

- 신청기한 : 혼인신고 일자로부터 3년 이내

지원내용

- 국제결혼에 따른 소요비용의 일부 지원(당해예산 소진시까지)

- 1인당 5백만원(1회)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정선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신청서 제출(주소지 읍·면) ⇒ 적격여부 심사 및 지원금지급(여성청소년과)

문 의 : 여성청소년과 여성정책팀 : ☎ 033)560-2977

힘내라 정선 청년(1)



들꽃사진관 대표 이혜진 작가



청춘은 언제일까? 일반적으로 10대 20대가 청춘이라고들 생각한다. 이팔청춘이라는 말도 있으니 말이다. 하지만 젊음이 전부인 시절에 행복함을 느끼지 않는다는 건 청춘을 지나고 난 뒤에 깨닫게 된 이치, 누군가는 나이 먹어서도 미성숙한 체로 청춘의 시간들을 표류하기도 한다. 그 청춘의 시간들의 표류를 끝내고 고향으로 내려와 정박의 닻을 내리고, 고한 18번가에 자리한 ‘들꽃사진관’을 운영하고 있는 청년 이혜진(29세 · 사진) 작가를 만났다.

달리기 선수 전교 회장

그의 파인더에는 정선의 현재가 담긴다. 그러나 태어난 곳은 포항이었다. 증산 사람인 아버지가 포항으로 일을 하러 갔고 거기에서 어머니를 만나 결혼했다. 포항에서는 6세 때까지 살았다. 그해 아버지는 증산으로 가족과 함께 귀향했고 덕분에 기억에 남는 어린 시절은 포항보다는 증산이다. 증산의 기운과 가족의 사랑이 넘치던 때였다.

“집안에서 첫째로 태어났어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죠. 어릴 때 부모님이 비디오를 많이 찍어주셨는데 그걸 보면 엄청 까부는 아이였어요. 지금과는 많이 다르죠. 아마 그 시절에 평생 까볼 것을 다 당겨서 써버린 것 같아요.”

사랑과 기대에 어긋나지 않아서 공부도, 운동도 잘했다. 중학교 졸업 무렵에는 강원체육고등학교로부터 스카우트 제안을 받았을 정도였다. 종목은 육상. 촬영을 할 때면 지칠 줄 모르고 민첩한 그를 보면서, 어디서 저런 힘과 근성이 나왔을까 의아했던 점이 해소되는 대목이다.

사북중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정선고등학교 우등

반 기숙생으로 입학을 한다. 쉴 틈 없이 공부해야 하는 기숙사 생활은 힘들었고 그와 잘 맞지 않았다. 카메라 가방을 메고 산천을 누빌 사람이 책상 머리에만 앉아 있어야 하는 건 역시 어울리는 조합이 아니었던 것. 1학년을 마치고 사북고등학교로 전학을 갔다. 서울로 치자면 8학군, 혹은 특목고를 스스로 떠난 셈이다.

사북 뿌리관에서 사진에 빠지다

“사북고등학교 재학 시절 사북 뿌리관에서 사진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인근에서 유일한 사진 강좌가 개설되어 있었거든요. 사진의 매력에 빠지게 그때부터였어요. 사진 관련학과로 진학하고 싶었죠. 못 하고 말았지만요.”

카메라를 메고 나서면 파인더에 담기는 세상이 온통 제 것 같았지만 장래가 불투명한 사진을 전공하기에는 집안의 경제 사정이 허락하지 않았다. 꿈과 현실을 모두 감안한 어머니의 제안은 어느 정도는 절충안으로 보였고 그래서 순순히 따랐다. 경찰이 되어 과학수사대에 가서 사진 촬영 업무를 하는 것이었다. 남다른 체력까지 뒷받침되니 얼마나 좋으냐는 권유에 그때부터 생활기록부 장래 희망 란에는 ‘경찰관’ 이라고 적히게 되었다.

“학창 시절에는 반장, 전교회장을 도맡아 했어요. 그러면서 하고 싶은 말이나 행동, 감정을 참는 것에 훈련이 되어 있었죠. 그때 풀지 못하고 쌓였던 욕구를 사진으로 풀었던 것 같아요. 사진을 찍으며 그때그때 힘든 상황을 사진 제목으로 붙이곤 했어요.”

누가 봐도 모범 청소년의 착한 취미 생활이었다.

이 작가는 모범생답게 주변의 기대에 부응하여 경찰 관련학과로 진학한다. 대학에서 배운 지식은 흥미로웠고 학과 친구들과도 좋았다. 문제는 정작 경찰관이 되어 과학수사를 할 자신이 서지 않는다는 것.

“현장에 나가 사체를 찍어야 하잖아요. 죽은 이의 몸을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더라고요. 수업 시간에 자료 사진도 제대로 못 보겠던 걸요. 1년이 지나고 나니 저절로 포기가 됐어요. 다른 꿈을 꾸기 시작한 거죠.”

대학을 졸업하고 여행과 일,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고 싶은 욕심으로 선택한 것이 국제 NGO 취직이었다. 잘 알려져 있듯 NGO 일은 쉽지 않다. 일 자체도 그렇지만 일로 얻는 보상에서도 그렇다. 더구나 그의 마음은 점점 더 사진을 향해 기울고 있었다.

“늘 카메라를 머리맡에 두고 지냈어요. 어느 날 문득, 이 일을 하는 동안 몇 컷이나 찍었지? 하고 확인해 보니 몇 컷 안 찍었더라고요.”

마음과 달리 실상은 사진과 점점 멀어지고 있었던 셈이다.

“회사를 정리하고 이틀간 잠만 잤어요. 그랬더니 딱! 준비가 됐죠! 이제 사진을 제대로 시작할 때였죠!”

고한 18번가의 꽃이 되다

청년 이혜진은 1년 간의 직장생활을 접고 고향으로 돌아온다. 정선에서라면 무슨 사진을 찍어야 할지 그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탄광촌의 구석구석이 그의 사진에 담기기 시작했다. 흡사 사진 속으로 빨려들 듯 그는 몰두했다. 즐기는 자의 기운은 멀리 뻗어갈 수밖에 없다. 고한 18번가 김진용 사무장이 합류를 제안했다. 이혜진은 그가 내민 손을 꼭 잡았다.

“진용 삼촌이 아니었으면 들꽃사진관은 없었을 거예요. 인터뷰 때마다 그 고마움과 감사를 전하는데 해도 해도 부족해요.”

2019년 3월, 고한 18번가 마을의 초입, 들꽃사진관에서 첫 플래시가 터졌다. 은혜슈퍼를 마지막으로 그 후에는 줄곧 비어 있던 상가였다. 사진관의 조명은 꺼지는 날이 없다. 문을 연 지 3년째. 이제는 한 달 촬영 스케줄이 꽉 찰 정도로 이 지역의 명물이 되었다. 비용은 인물 사진 1만 5천 원, 가족사진은 1인당 1만 5천 원. 요즘 말로 ‘착한’ 가격이다. 정선관내 행사장 촬영 작가로 운영에 힘을 보태고 있어 가능한 일이다.

“부모님 용돈 정도는 드릴 수 있어요.”

함박 웃으니 그저 착한 딸의 얼굴이다.

그의 꿈은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꿈이 이루어지면 한 발 더 나간 꿈을 꾸게 되는 법이니까.

“대학에서 사진을 공부하지 못했잖아요. 들꽃사진관에서의 작업이 대학 공부라고 생각해요.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거죠. 조금 더 자리가 잡히면 관련 대학원에 진학해서 제대로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때가 오면 몇몇 청년 작가들과 함께 사진관을 공동 운영할 계획도 세워두었다.

자, 스물아홉 이혜진 청년. 그의 청춘은 언제 끝날지 모른다. 모르긴 해도 그의 청춘도, 꿈도, 아직 저 멀리에서 돛을 올리고 있을 것이다. 힘내라, 정선 청년 이혜진!



건강/정보

난임진단 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정선관내 주소지인 부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 중)
- **지원기준** : 난임시술의료기관에서 검사한
진단비
- **지원금액** : 부부당 최대 15만원

난임시술비 지원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부부
- **지원내용** : 체외·인공수정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
착상보조제, 배아동결비 등 시술별
지원금액 상한 범위 내
- **지원금액** : 체외수정 최대 110만원, 인공수정
최대 30만원 지원

「정선군보건소 예방의약팀 ☎ 033)560-2060」

어르신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

- **접종대상** : 만65세 이상 어르신
(1956. 12. 31. 이전 출생자)
- **접종시기** : 연중
- **접종기관** : 보건소 및 7개 보건지소
- **접 종 비** : 무료
- **사용백신** : 폐렴구균 23가 다당질 백신
- **전화문의 후 방문**
※ 진료소 제외

「정선군보건소 예방의약팀 ☎ 033)560-2116」

생/활/법/률 Q&A

Q 저의 남편은 회사에서 퇴근하여 귀가하던 중 횡단보도상에서 과속으로 질주하던 승용차에 치어 현장에서 사망하였습니다. 가해자는 구속되었고, 그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은 되어 있지만, 가해자 측에서는 한 번도 찾아오지 않고 위로의 말 한마디 없습니다. 저는 보험금 이외에 별도로 형사상 위로금을 청구하고 싶는데 그것이 가능한지요?

A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상의 처벌문제와 민사상의 손해배상문제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형사상의 처벌문제는 국가와 가해운전자와의 관계이고, 민사상 인사사고에 대한 손해배상문제는 피해자와 가해운전자 및 운행의 지배 이익을 가지는 자(통상 차주가 될 것임)와의 관계이므로 교통사고로 인한 인사사고의 피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해운전자 및 운행의 지배이익을 가지는 자를 상대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상 위로금, 이른바 형사합의금은 가해운전자 자신이 형사처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받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임의로 지급하면 받을 수는 있으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 민사상 손해배상금 이외에 별도로 법률상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참고로 형사합의금의 성질에 관하여 판례는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과정이나 형사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 받은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며(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14018 판결), 이 점은 가해자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형사상의 처벌과 관련하여 금원을 공



2021년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모집

영양플러스 사업이란?

영양상태가 취약한 임신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교육과 보충식품을 제공함으로써 태아부터 산모까지 건강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영양지원사업

◆ 지원기준

- ♣ 72개월 미만 영유아,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 ♣ 기준 중위소득의 80%미만
 - 무료 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65% 미만
 - 자부담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65~80% (식품비의 10% 자부담)

◆ 영양교육

- ♣ 읍면별로 월 1회 실시
- ♣ 가정방문을 통한 맞춤형 영양상담, 보충식품 이용 및 보관방법 교육

◆ 보충식품 제공

- ♣ 영유아,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등 대상자별 식품 패키지제공 (각 가정으로 월 2회 배송)
- ♣ 6개월~최대1년까지 식품패키지 제공

◆ 영양평가

- ♣ 빈혈검사, 신장 및 체중측정, 식품섭취조사
- ♣ 6개월 간격 자격재평가 실시

보건소이야기 / 정선군보건소



■ 당번약국 운영 시간 :

- 일요일 및 명절 연휴 기간(09:00~13:00)
(단, 중앙약국 당번일 16:00까지, 사랑의약국 당번일 18:00까지운영) 사전에 전화 확인 필요함.
- 토요일은 전체 약국이 13시까지 운영(사랑의약국 18:00까지) 사전에 전화 확인 필요함.
 - 평일 사랑의약국(21:00까지) 사전에 전화 확인 필요함.

정다운 약국	명진 약국	최약국	정다운 약국	시장 약국	사랑의 약국	중앙 약국
7일	11일	12일	13일	14일	21일	28일

■ 휴일지킴이 참여(의약분업지역 정선읍)약국 전화번호

최약국(563-0557) 시장약국(562-3840)
코끼리약국(562-0828) 중앙약국(563-7088)
명진약국(563-1568) 사랑의약국(563-2281)

※ 의약분업 예외 지역인 사북, 고한, 신동, 여량, 임계의 모든 약국은 휴일지킴이 약국 없이 야간과 주말에도 운영합니다.(전화확인 필요)

- **고한읍** 동시약국 591-2874
문화약국 591-2434
- **사북읍** 명도 온누리약국 592-4544
유명약국 592-3823
- **신동읍** 서울약국 378-6564
- **여량면** 백세약국 562-1390
- **임계면** 강약국 562-6263

※정선읍 지역 평일 야간과 주말 응급환자는 정선 병원 응급실을 이용하시고 안전상비의약품은 24시간 편의점에서 판매합니다.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 반납자 교통비 지원 안내

2020년 1월 1일부터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65세 이상 운전자에게 최초 1회에 한해 교통비 30만원을 지원해드립니다.

-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중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기 간** : 2020. 1. 1. ~ 계속
- **지원내용** :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 1인 1회에 한정 교통비 30만원
※ 기존 10만원 → 30만원 지급 (2020.10.12. 조례 개정)

■ 신청방법

● 면허증 반납 및 인센티브 신청

- ▶ **접 수 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 **접수방법** : 본인직접 방문접수(신분증 지참)
- ▶ **구비서류** : 신청서 작성, 운전면허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 교통비 지원

- ▶ **신청인 본인명의 계좌 지급**

※ <문의> 정선군 안전과 교통지도팀
☎ (033)560-2511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되었으나, 이용자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공단 정선지소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내 상담은 국번없이 132

2021년도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 신청 안내

지원내용

(단위 : 천원)

차종	사업량	지원금	비 고
전기승용차	48대	1,220(평균액)	차등 지원
전기화물차(소형)	23대	2,400	정액 지원
전기화물차(초소형)	23대	1,212	정액 지원
전기이륜차	6대	189(평균액)	차등 지원

■ 신청기간 : 2020.3.2. ~ 2020.12.31.

신청대상

- 2021년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 공고일 기준 90일 전부터 공고일까지 정선군에 주소를 둔 만18세 주민
- 2021년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 공고일 기준 90일 전부터 공고일까지 정선군에 주소를 둔 사업자 · 법인 ·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중앙행정기관 제외)

보급기준 : 1세대당 1대, 1사당 1대

- 전기이륜차 : 유형 · 규모, 성능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지원
- 전기승용차 : 저온성능, 배터리용량 등 자동차의 성능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지원
- 전기화물차 : 차량규모에 따라 정액 지원

신청방법

- 전기차 제조 · 판매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후 신청서 등 관련 서류 일괄 제출
- 전기차 제조 · 판매사에서는 제출된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 전산 시스템에 제출

※ 위 사업의 자세한 신청기간, 기준 및 절차는 2021년 2월중 정선군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오니,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안내

사업별 지원내용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량	지원금	비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820대	3,000(상한액)	차량의 연식 및 제원 별 차량기준가액으로 산정
노후경유차 매연 저감장치	30대	3,727(자부담 발생)	저감장치 장착 지원(제원 별 부착장치 상이)
건설기계 매연 저감장치	2대	7,778	저감장치 장착 지원(제원 별 부착장치 상이)
건설기계 엔진교체	8대	12,993	엔진교체 비용 지원
LPG화물차 신차구입	45대	4,000	정액지원

■ 신청기간 : 2021.2월 ~ 2021.12월

신청대상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또는 환경부 콜센터(☎1833-7435) 확인가능
-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 펌프카, 콘크리트 믹서
- Tier-1('04년 이전 제작) 이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삭기

■ 신청기준 : 정선군에 6개월 이상 등록 · 소유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 신청방법 : 정선군청 환경과 방문 신청 (☎033-560-2349)

※ 위 사업의 자세한 신청기간, 기준 및 절차는 2021년 2월중 정선군 홈페이지에 사업별로 공고할 예정이오니,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정선군 융복합지원사업 사전신청 접수 안내

사업개요

- 사업명 : 2022년 정선군 융복합지원사업 공모사업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2022년 12월
- 사전신청접수 기간 : 2021년 1월 11일 ~ 2021년 2월 28일
- 대상시설 : 공공 및 주택(지열 17.5kw, 주택 태양광 3kw, 공공건물 100kw)
- 주 관 : 한국에너지공단
- 지원내역 : 지열 17.5kw, 주택 태양광 3kw, 공공건물 100kw
- 에너지원별 사업비(2021년 사업비기준)

에너지원	설치비	정부지원	지자체	자부담	회수기간	지원분야	비고
태양광(3kw)	5,028,000	2,514,000	1,760,000	754,000	2-3	전기	
지열(17.5kw)	22,330,000	11,147,500	7,833,500	3,349,000	3-4	온수,난방	

※ 현장 조사후 설치 가능여부 결정(하자보증기간 5년(태양광 인버터 7년))

■ 접 수 처 : 읍·면 산업개발팀 및 전략산업과 그린뉴딜팀 ☎ 033)560-2434

폐농약용기류 수거 안내

■ 폐농약용기류 수거가능 품목

※ “농약”이라고 표시가 된 폐농약용기류만 공단에서 수거(반입) 가능



■ 폐농약용기류 분리배출 방법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농약**이라고 표시된 플라스틱병, 봉지류만 그물망, 마대 등에 모아서 공동집하장 또는 공단 수거사업소로 배출

단, 영양제 및 친환경 유기농 농약 등 **유사용기**는 수거 불가 (해당 지자체에 재활용품 분리배출)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안내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을 안내하오니 자원 분리배출 방법과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용등을 참고하시고, **배출요일과 시간을 준수하여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데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출요일

- 소각·매립용 쓰레기는 화 목 일 요일에 배출
- 음식물 쓰레기는 월 화 수 목 일 요일에 배출
- 재활용품은 수 요일에 배출
- 연탄재, 대형폐기물은 월 목 요일에 배출
- ※수거는 배출일자 다음날 실시

배출시간

오후7시부터 다음날 오전7시까지 배출

배출장소

반드시 내집·내점포 앞 쓰레기 배출 지정장소

배출방법

음식물용 (녹색봉투)	※ 수분을 제거한 가축악으로 가능한 음식물류 쓰레기 ○ 이물질은 반드시 분리배출해 주세요(병뚜껑, 종이, 호일, 플라스틱, 쇠붙이 등) ○ 과일껍질 등은 최대한 수분을 제거하고, 통배추, 통무는 잘게 찢어서 배출
소각용 (적색봉투)	※ 재활용을 제외한 소각 가능한 쓰레기 ○ 나무조각, 화장실휴지, 기저귀 등 ○ 건축류(호두, 땅콩, 밤등의 껍질), 책과류(복숭아, 감등의 씨) ○ 각종 차량(녹차 등)찌꺼기, 한약재 찌꺼기, 옥수수껍질·통 등
매립용 (갈색하늘색 봉투)	※ 소각 및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 ○ 깨어진 시가류·도자기류·유리제품, 가죽제품 ○ 뼈다귀(소, 돼지, 닭) ○ 어패류(조개, 고막, 게, 굴, 소라 등) 껍데기 등
재활용 (일반 투명봉투)	※ 분리배출 표시제품 ○ 종이, 유리병, 캔류, 알루미늄, 플라스틱류(PP, PE, PS, PET 등) ○ 고철, 폐지(종이상자, 책 등), 폐형광등, 폐건전지류
대형폐기물	○ 장농, 책상, 의자, 소파, 매트리스, TV, 냉장고, 에어컨 등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고 후 배출

문의 : 정선군청 환경과 ☎ 033)560-2359 또는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우리 동네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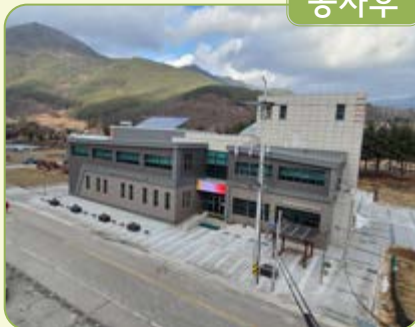
지역의 대소사, 각종 행사장소로 활용되는 북평면 복지회관이 리모델링을 마치고 준공을 앞두고 있다.

복지회관 리모델링으로 그동안 협소한 실내공간과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불편을 겪어오던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전



공사후



나눔으로
희망을
이어주세요

'희망2020 나눔캠페인' 성금모금에 기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0.12.01.~2021.01.15.

정선양묘회 / 정선군도시과직원일동 / 정선군민원과직원일동 / 정선읍새마을부녀회 / 정선읍지자체협의회 / 임계면 도천1리주민일동(이장 정영선) / 여랑면행정복지센터직원일동 / 광대길 / 북평면 북평2리 이장 / 도석흥 / 최경순 / 이영순 / 정선군복지과직원일동 / 임계면행정복지센터직원일동 / 정선군경제과직원일동 / 정선군행정과직원일동 / 정선읍행정복지센터직원일동 / 여랑면행정복지센터민원성금모금함 / 김희석 / 북평면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일동 / 김남욱 / 임계면 임계1리주민일동(이장 김부주) / 신동읍행정복지센터직원일동 / 신동읍 새마을부녀회(회장 심순례) / 신동읍 예미4리주민일동(이장 박수봉) / 김기석 / 정선읍 봉양5리주민일동(이장 신동주) / 예스티조경건설(대표 임인정) / 건정건축사무소(소장 김춘래) / 광고사랑(대표 박성열) / ㈜유원건설(대표 유정은) / ㈜다한(대표 유정은) / 조은광고기축(대표 박광호) / 전영희 / ㈜성원건설 대표 고영수 / 최승준군수님 / 김병렬부군수님 / 임계면 낙천3리주민일동(이장 김동관) / 임계면 송계2리주민일동(이장 김중규) / 화암면행정복지센터직원일동 / 이장권 / 전수인 / 화암면여성의용소방대 / 백미정 / 고영우 / ㈜진우축량엔지니어링 / 한국광물자원공사 / 북평면 남평1리부녀회직원일동(회장 유정자) / 임계면 가록리주민일동(이장 김기갑) / 정선군건설과 직원일동 / 정선군기획직원일동 / 정선군회계과직원일동 / ㈜오미아코리아직원일동 / ㈜대원(대표 최충원) / 석곡교회 / 여성교회 / 전복순 / 정선군 8087-1대대(중령 김태원) / 농업기술센터직원일동 / 정선군문화관광과직원일동 / 정선군세무과직원일동 / 상명종합건설(대표 유형상) / 이종재 / 민족통일정선군협의회 / 사북읍행정복지센터직원일동 / 정선지하수개발(합)(대표 심기섭) / ㈜오성미래기술(대표 유기숙) / 신동여성협의회(회장 최순분) / 신동읍에미농협농가주부모임(회장 정옥자) / 임계면 이장협의회(회장 박종부) / 상하수도사업소직원일동 / 정선군 보건소직원일동 / 정선군 산림과직원일동 / 정선군 여성청소년과직원일동 / 사북읍행정복지센터민원성금모금함 / 고한읍행정복지센터직원일동 / 남면행정복지센터직원일동 / 사북여성의용소방대(대장 권미자) / ㈜제일축량엔지니어링(대표 권오명) / 아우라지직접산자회사 회원일동(회장 유두리) / 이상길 / (합)수북건설(대표 이희자) / 북평면행정복지센터직원일동 / 건축사 사무소 창(대표 이창우) / 임계면 낙천1리주민일동(이장 오복록) / 임계면 번영회(회장 노현태) / 일진건설(대표 김종국) / 주식회사 백진(대표 최항규) / 삼진종합상사(대표 이영모) / 문광건설(대표 김정녀) / 주식회사 우드원(대표 여성진) / 봉양철물건재 / 비봉전기(대표 김정오) / 남면 이장협의회(회장 신숙선) / 원주상회(조기환) / 윤창욱 / 여랑면남성의용소방대 대원일동(대장 전제선) / 여랑면 여랑3리주민일동(이장 이선국) / 김상규 / ㈜기상(대표 전상훈) / 정선읍이장협의회 일동(회장 전영록) / ㈜강원엔지니어링(대표 인선희) / 예교정보통신(대표 지운식) / 황금미용실(최순화) / 정민건설(합)(대표 최충원) / ㈜신동(대표 김형준) / (합)상명건설 대표 김영숙 / 사포민박(대표 변근호) / 스카이마트(대표 박순주) / 송부포장건설(대표 류태원) / 최종운 / 정선읍여성의용소방대(대장 민병수) / 임계면여성자율방범대(대장 이순자) / 북평프로자전거 정비공업사(대표 김화평) / (사)한국농업경영인정선군협의회(대표 심재희) / 사북어린이집(대표 김정희) / 정선읍 용탄2리주민일동 / 우일기업 / 북평면적십자봉사회회원일동(회장 라선옥) / 고한읍자연보호협의회(회장 강정수) / 박복순 / 엄성학 / 여랑면 구절2리주민일동(이장 김재현) / 순형전파사(대표 박형진) / 백봉건설(대표 김춘경) / ㈜덕수건설(대표 이재익) / (주)명보건설(대표 김택숙) / ㈜대안(대표 김민선) / 여랑면 여성의용소방대대원일동(대장 이국형) / 태흥실업(대표 고시하) / 은마용실(대표 김순녀) / ㈜가온(대표 김대영) / ㈜대한건설(대표 황선창) / 정선잔디공원(대표 이문재) / 영지의료기기(유연식) / 성심기업(대표 안수철) / 화암면 건천리주민일동 / 우리주민주식회사(대표 김진복) / 남면 유평2리주민일동(이장 나건주) / 남면 문곡3리주민일동(이장 신숙선) / 남면여성의용소방대(대장 최인숙) / 원웅엔지니어링(대표 한동희) / (유)대용개발(대표 이흥순) / 북평면이장협의회회원일동(회장 위재웅) / 신효선 / 북평면여성의용소방대원일동(대장 조원선) / 북평면자연보호협의회회원일동(회장 유병호) / 북평면 북평1리주민일동(이장 신원희) / 신원희 / 정암사(주지 천웅스님) / 석광산업주식회사(대표 박종찬) / 여랑면노인회(회장 백영범) / 가람조경(대표 김정희) / 아라리한과(대표 강옥연) / 대영건설(대표 남진모) / 녹송철물(대표 임재혁) / 정선읍적십자봉사회(회장 박귀숙) / 제일환경(대표 전제연) / 정선농협하나로마트 고객일동 / ㈜강원레미콘 직원일동(대표 문대수) / (주)정선레미콘 직원일동(대표 강선주) / 구절그리스도의교회(목사 박영우) / 나전성결교회 교우일동(담임목사 조재율) / ㈜대해건설(대표 최호순) / 최창식 / 원진(대표 원준호) / 늘푸른조경(대표 이경숙) / 송화라이온스클럽(회장 김음미) / 사북라이온스클럽(회장 최경식) / 최창대 / 청룡건설(대표 최인철) / 여랑면 여랑4리노인회회원일동(회장 이근우) / 여랑면 여랑4리주민일동(이장 김상규) / 이근우 / 김금식 / 연세외과의원(원장 김중석) / 정선군시설관리공단 / 이일재 / ㈜정유(대표 이명자) / 정선병원간호부 일동 / 신동읍적십자 (사)광산진폐폐기연대 회원일동(대표 구세진) / 정선군산림조합(대표 전학규) / 조길주 / 강원엔지니어링(대표 인선희) / 정선군새마을회 / 정선군한마음회(회장 표영욱) / 정선군생활개선회(회장 양주희) / (주)서광건설엔지니어링(대표 김진수) / (주)기상건설(대표 이원균) / 사북2리개발위원회(대표 김민호) / 농업회사법인(주) 그림바위농장(대표 정현교) / 태산식육점(대표 조성하) / 지역살리기공동추진위원회(대표김태호)

정선장학회 소식

2020.12.19.~2021.19 기간중

♥ 장학금을 기탁하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416-2 은행나무집 황학수	300,000
사북어린이집(원장 김정희)	200,000
강원도청 이상현	100,000
정선읍 박영훈	30,000
정선신협 신다정	30,000
전국건설기계 정선연합회(회장 손호국)	200,000
제일환경 전제연	30,000
정선군 농업기술센터 최승수	50,000
정선군 농업기술센터 장서은	30,000
정관장 정선점 장혁기	50,000
정선읍 JS정보기술 권용찬	100,000
정선군 농업기술센터 고기운	50,000
강원도청 도원희	1,000,000
셋삼오회 고용길	30,000
여랑면 임병원	50,000
강원주유소 김은주	100,000
상유재고택	100,000
북평면 북평리 나선옥	30,000
유남식	50,000
홍샘수학	50,000
북평면 속암리 벚밭길 388-2 산사야	100,000
나전주유소 김미숙	100,000
(주)서광건설엔지니어링(대표 김진수)	5,000,000
(주)청솔엔지니어링(대표 방윤현,박지연)	5,000,000
정선감리교회	100,000
도봉산갈비 2호점 정성필	1,000,000
강원도자동차전문정비협회 정선지회	1,000,000
정선읍 (주)진우축량	50,000
북평면 영주슈퍼 정원정	300,000
JS농축산기계	100,000
정선병원간호부	500,000
정선읍 (합)대성축량 이승호	50,000
(주)기산전력 대표 유은옥	100,000
옥스퍼드어학원 임창준	100,000
재경출향인사 전준형(전창주)	100,000
석영공업사 이상익	50,000
거북바위길 76번지 최영규	200,000
대한적십자사	1,000,000
전찬오	30,000
정선의용소방대연합회(회장 송수호, 민병수)	1,000,000
사북어린이집(원장 김정희)	30,000
정선감리교회	50,000
정선세차장 최광연	50,000
여랑면 사계절 막국수 김경석	50,000
중47 고49 큰그루회	30,000
정선중학부모회(회장 전미경)	450,000
이용식	1,000,000
한국생활개선회 정선군연합회(회장 양주희)	1,000,000
평창영월정선축산농협(조합장 고광배)	3,000,000
건축사사무소 창(대표 이창우)	50,000
아라리종합상사 배부근	50,000
정선읍 베스트샵 정선점(LG전자) 장혁기	100,000
전연하	50,000
아라리매점 김용자	30,000
농협책임자회	2,000,000

(재)정선장학회 장학금은 다음의 계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 농협중앙회 224-01-004746, 224-01-003932

♣ 정선농협 315023-51-065923

♣ 평창영월정선축협 172721-51-004349

♣ 신용협동조합 131-002-196334

♣ 정선우체국 200360-01-003372

공개를 원하지 않고 기탁하신 후원자님들에게
지면을 빌려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 문의 정선군청 여성청소년과 ☎ 033) 560-2185~6

독자마당 참여하세요.

아라리 독자마당은 아라리 리포터와 군민여러분께서 만드시는 란입니다. 생활주변의 미담, 시, 수필, 콩트 등 다양한 글을 A4 한 장 분량으로 보내 주시면 편집자 회의를 통해 엄선하여 정성껏 실어드리며 소정의 상품권을 보내 드립니다.

보내실 곳

◆이메일 twin0624@korea.kr

◆우 편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기획관실 아라리사람들 담당자 앞

정선군 소식지「아라리 사람들」
이제 QR코드로 쉽게 만나보세요!

정선군 소식지「아라리 사람들」을
스마트 폰으로 언제 어디서든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성명서

중앙행심위의“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처분 취소 인용”결정을 축하드리며, 동시에 가리왕산 곤돌라 존치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한다.

양양군민의 40년 숙원사업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된 점에 대하여 양양군민이 겪은 고초를 우리 정선 군민도 동병상련의 입장에서 축하와 격려를 보내 드립니다.

지금까지 답보상태로 해를 넘긴 가리왕산 알파인경기장 합리적 복원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한 합의기구의 무책임하고 비합리적인 일련의 조치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당초 국무총리실 주관 한시적 기구로 운영하기로 약속을 했으나, 문제해결을 위한 아무런 조치 없이 평창동계올림픽 폐막 이후 3년이 흘렀다.

정선 알파인경기장 철거반대 범군민 투쟁위원회(이하 ‘반투위’라 한다.)는 2020년 10월 27일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에 반투위 명의로 조속한 문제해결을 탄원하였으나, 이마저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하고 한해를 넘기고 말았다.

코로나19로 인한 전염병의 퇴치를 위하여 방역에 동참하면서 인내하며 지켜보던 우리는 또다시 강추위가 엄습한 가리왕산 하봉 정상에서 투쟁을 재개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올림픽 유산보존 천명에 따른 합의기구의 빠른 결정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구한다.

산림청은 3년간 이어온 정선군민의 요구사항을 잘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하여 안전을 핑계로 입산 불허, 차량 진입 방해 등 직·간접적으로 훼방하는 것은 직접적 이해 당사자인 정부기관으로서는 하여서는 안 될 비상식적인 행위인 것이다.

우리 반투위는 알파인경기장 곤돌라 탑승장, 가리왕산 하봉 정상에서 강추위에 목숨을 담보로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투쟁을 지속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불상사 등 제반문제는 정부와 투쟁을 직·간접적으로 방해하는 산림당국에 있음을 명확히 선언한다.

다시 한 번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인용 결정을 환영하는 동시에 후속 조치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는 올림픽 유산인 가리왕산 곤돌라 존치 문제와 쌍둥이처럼 너무도 닮아있다. 케이블 길이가 동일할 뿐만 아니라 표고차도 엇비슷하여 한쪽은 올림픽유산으로, 다른 한쪽은 국립공원으로 둘다 국민에게 행복권을 제공한다는 큰 뜻이 담겨있다.

특히, 가리왕산 합리적 복원을 위한 협의회가 강원도-정선군-알파인경기장철거반대범군민투쟁위원회 상호간에 합의하여 건의한 사항(가리왕산 복원을 준비하는 3년 동안 곤돌라를 운영하고 그 기간내 검증을 거쳐 존치하거나 철거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코로나19 전염 우려 등 현 상황을 이유로 회의 개최를 더 이상 지연하지 말고 조속한 시일내에 정상화하여 가리왕산 곤돌라 운영·검증을 통한 존치 결정에 이를 수 있도록 투쟁을 이어 나갈 것이다.

강원도는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해결에 앞장서야 할 것이며, 정부는 일방적이고 편향적인 논리에 얽매이지 말고 국민 누구나 올림픽 유산인 곤돌라를 이용하여 천년 자연림인 가리왕산 정상에서 자연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함이 타당하다고 보며, 다시 한 번 국민이 바라는 올바른 결정을 촉구한다.

2021년 1월

정선 알파인경기장 철거반대 범군민 투쟁위원회